

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대책 마련 -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-

< 보도 내용 (한국일보, 7.12) >

◆ 양평고속도 무산 땀 3기 신도시 교통망 ‘구멍’

○ 5년 후 7.8만명 입주할 교산신도시 서울 잇는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축 무산되면 입주민 불편 및 기업단지 타격

□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은 '20.5월 확정되어 철도사업 1건, 도로사업 13건, 환승시설 등 6건 총 20건의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약 2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* 송파-하남 간 도시철도, 서하남로 확장,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등

○ 현재, 철도사업인 “송파-하남 간 도시철도 건설(3호선 연장, 12.0km)”은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, 서하남로 확장 등 도로사업 및 환승시설은 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○ 특히, 서울-교산 간 도로사업으로는 서하남로 확장(설계중),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(설계중), 동남로 확장개선(설계중), 황산-초이 간 도로신설(설계중) 등을 추진 중으로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공할 계획입니다.

□ 하남교산 신도시 전체 발생교통량(약 16만대/일) 중 서울-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약 1.5만대/일, 전체 발생교통량 대비 약 9.4% 수준으로, 서울-하남-양평 교통량을 보완할 수 있는 서하남로를 비롯한 기존 도로 추가 확장, 신설 노선 추가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505)
		담당자	사무관	하태아 (044-201-4526)
	도로국 도로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명희 (044-201-3875)
		담당자	서기관	이종현 (044-201-3904)